

# 오늘의 해양쓰레기

Vol. 177  
2024년 12월

오션, 유엔 국제 플라스틱 협약  
공식 부대행사 참여

참관인으로서 오션이 바라본  
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결과

INC-5 안팎으로 종횡무진 활동한 오션

경남 글로벌 통합 포럼 참여 및 MOU 체결

지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170명 청년들에게 국제 플라스틱 협약 소개

작품명 | 바다 빼기 바다

작가 | 김정아

아름다운 바다, 그 안의 자유로운 생물들,  
바다에서의 추억이 사라지고 쓰레기가 자리를 차지한다.  
지구와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질 듯 아슬아슬하다.

ISSN 2288-0208



# CONTENTS

## 특집

- 오션, 유엔 국제 플라스틱 협약 공식 부대행사 참여 04  
열일캠페인, 바다기사단의 국제적 지평 확장을 위한 첫걸음
- 참관인으로서 오션이 바라본 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결과 07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 INC-5, 그 결과는?
- INC-5 안팎으로 종횡무진 활동한 오션 12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다

## 최근활동

- 경남 글로벌 통합 포럼 참여 및 MOU 체결 18  
동아시아 지역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협력 활동 소개
- 지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19  
170명 청년들에게 국제 플라스틱 협약 소개  
한국지속가능발전청년협의체 정기총회에서 전문가 강연 실시
- 반짝이는 청년 오션 서포터즈, '윤슬' 1기 수료 이야기 20  
해양환경 보호 서포터즈 윤슬 1기 성공적 마무리
- 영천여중, ESG 교육 통해 미세플라스틱 문제 체험 22
- 환경재단 바다쓰담 캠페인 결과 보고회에서 주제 강연 23  
연안정화에 활용하기 좋은 열일바다청소 앱 등 소개
- 지에스리테일, 팀부스터, 오션, 해양생태보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24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 체계의 모범 사례 기대
-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해운·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간 25  
협약의 배경부터 협상 진행 과정과 관련 국내 정책 및 동향까지 포괄적으로 담은 보고서

## 세미나 중계

- 1차 플라스틱 생산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 ————— 26  
제536회 오션 정기 세미나에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를 앞두고 플라스틱 생산 공정 전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화하고, 주요 플라스틱 폴리머별 배출량을 분석한 논문 다뤄

## 해양환경 뉴스

- 해수부·GS리테일, '해양보호생물 보호' 맞손 ————— 28
- “저 많은 쓰레기가 바다를 삼키기 전에”...  
제주에서 시작한 ‘렛츠플로그’의 기적
- 시민 2500여명이 반년간 해양쓰레기 56t 수거...  
플라스틱 파편만 1만8000여개

## 언론보도

-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오션! ————— 29  
2024년 12월  
- 람사르 습지 덮은 쓰레기... “플라스틱이 98.5%”  
- 매일 통발10,000개를 뿌리고 거둬라! 잠도 쪼개 자는 장어잡이 어선  
- 백만 개의 플라스틱, 지구 반대편에서 발견되다

## 공지사항

- 오션을 밀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 함께 나눌 회원을 모집합니다. ————— 30
- 새로운 후원자 소개 ————— 31
- 11월 회비 납부 현황 및 후원 방법 안내 ————— 32
- 1월 세미나 공지 —————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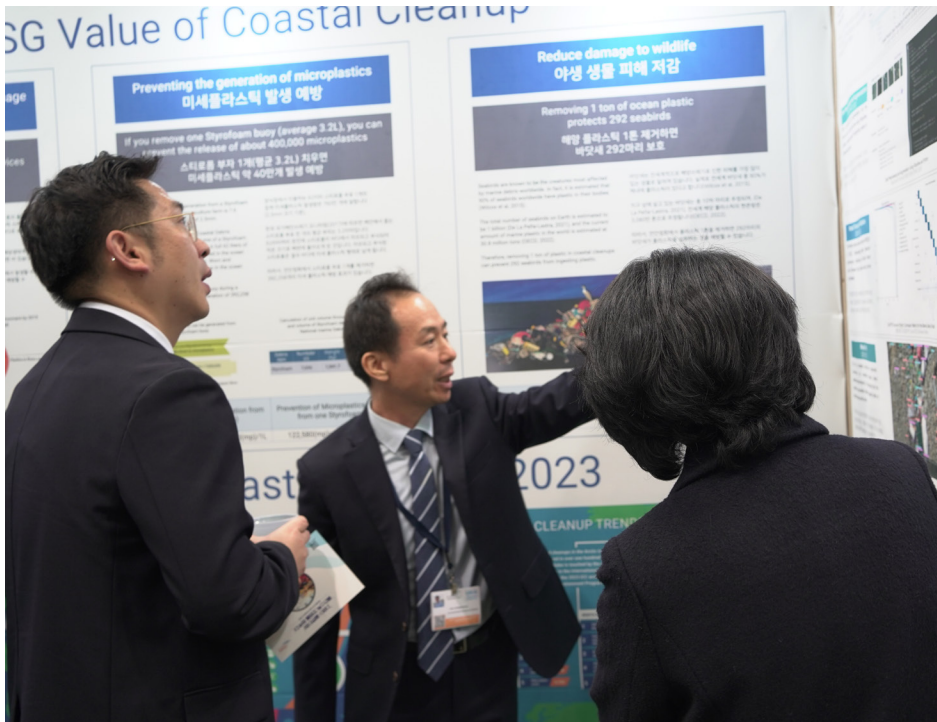
특집

# 오션, 유엔 국제 플라스틱 협약 공식 부대행사 참여

열일캠페인, 바다기사단의 국제적 지평 확장을 위한 첫걸음

이종명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소장 | jmlee@osean.net

이민성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KOICA YP | mslee@osean.net



[사진 1 & 2. 플라스틱  
협약 공식 부대행사장에  
설치된 오션 부스]

지난 11월,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이하 오션)은 부산에서 열린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제5차 정부 간 협상 위원회(이하 국제플라스틱 협약)의 공식 부대행사에 참여했다. 플라스틱 협약 기간 동안 전시 부스를 상설 운영했고, 28일(목)에는 단독 세미나를 주최했다.

## 플라스틱 협약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하는 가이드북 배부

오션에서는 플라스틱 협약을 앞두고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해운 해양 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제작했다. 전시장에서는 보고서의 요약본 실물을 배부했는데, 많은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눈에 이해하기 쉬운 인포그래픽과 자세한 설명을 읽다 보면 실효성 있는 플라스틱 협약이 왜 중요한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부스 관람객은 물론 다른 부스의 참가자 역시 본 요약 보고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협약의 실질적 중요성에 공감했다.

## 바다기사단 인터내셔널, 오션의 새로운 국제 협력 기반 마련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이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는 만큼, 해양 환경에 관심이 높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오션 부스를 찾았다. 특히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오션 AI의 객체 탐지 기술과 바다기사단 애플리케이션이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접목한 해양 쓰레기 관리 솔루션은 정부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큰 관심을 끌었고, 협업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례도 이어졌다. 이를 통해 오션은 AI 기반 해양 쓰레기 관리 방법론을 국제 협력의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첫걸음을 내딛었다.

## 열일캠페인 인터내셔널, 해양쓰레기 관리 방법론의 글로벌 확산

오션은 2008년부터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방법론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여러 국가의 정부기관 관계자들에게 이전되었으며, 역량 강화 사업 또한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 모니터링을 심화 발전시켜, 해안에서 빈번하게 발견되고 피해가 심각한 상위 10개의 해양 쓰레기를 선정하고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정책 제안까지 이어지는 열일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공식 사이트

이벤트에서 오션은 열일캠페인의 글로벌 확장을 모색하며 필리핀을 시작으로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에 나섰다. 다양한 국가의 이해관계자와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며,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 ‘국제연안정화와 시민과학’ 세미나 개최

11월 28일에는 ‘플라스틱 협약 이후 글로벌 연대의 미래 - 국제연안정화와 시민과학’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ILBI) 결의를 이끈 전 세계적인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조명하고, 시민 과학과 국제 연안 정화 활동이 협약 개발과 실행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기초 연사로 나선 국제과학자 연합의 트리시아 페렐리 박사는 연안정화에서 투명성과 안전, 지속가능성과 책임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연안정화 주최단체인 오션 컨서번시의 니콜라스 말로소 부총재는 플라스틱 국제 협약 이행에서 국제적 협력과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고, 필리핀 시민단체 CORA의 안토와네트 타우스 대표는 공동체 참여를 통한 플라스틱 오염 대응 사례를 소개했다. 오션의 홍선욱 대표는 시민과학을 활용한 해양쓰레기 대응 정책과 모니터링 지침 성과를 소개했다. 패널토론에는 세계은행, PADI 프로젝트어웨어, 국제 폐어구 대응 이니셔티브(GGGI) 등의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플라스틱 오염 대응에서 시민과학 데이터 활용을 발전시킬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세미나에는 최대 수용 인원인 60여 명이 꼭 차게 참여한 열띤 분위기 속에서 플라스틱 협약이 이행될 미래에 국제연안정화의 역할을 논의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사진 3. 연안정화와 시민과학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오션 홍선욱 대표]

# 참관인으로서 오션이 바라본 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결과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 INC-5, 그 결과는?

이유나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국제협력팀장 | yunalee@osean.net



[사진 1. 부산에서 개최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개최식]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The fifth session of the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이하 INC-5)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 벅스코에서 열렸다. 유엔환경총회(UNEA) 결의문(5/14)에 따라 2년간 이어진 협상의 마지막 회의로 예정된 INC-5는 협약의 초안을 마무리할 마지막 기회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모인 약 4,000명이 한자리에 모여 세부 의제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지만, 참여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연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번 기사에서는 INC-5의 주요 협상 과정과 그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캐나다 오타와에서 한국 부산에 이르기까지

INC-5 협상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두 가지 중요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INC-4 회의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는 산유국 및 주요 플라스틱 생산국들이 '유사입장그룹(LMG)'을 결성하고 플라스틱 생산 규제에 강하게 반발한 점이다. 사우디, 이란, 쿠웨이트, 러시아, 인도, 쿠바, 바레인 등 국가는 플라스틱 생산 규제가 경제 성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협약에서 생산량 감축보다는 재활용 촉진과 포장 디자인 개선, 폐기물 관리 등의 문제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제 협약의 중요한 이해관계자로서 강력한 협상력을 행사했다. 이러한 입장은 또 다른 가시적인 움직임인 기업들의 로비와 맞물려 협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엑손모빌, 셸, 다우 등 LMG 국가와 궤를 같이 하는 주요 화학 기업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반대하며 생산 이후의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 기업은 플라스틱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생산 감축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INC-4 에 약 200명, INC-5에 약 220명의 참관인을 파견하는 등 강력한 로비 활동을 통해 많은 국가에 영향을 미치며, 플라스틱 생산을 축소하는 합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물론 모든 기업이 플라스틱 협약에 적나라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지는 않다. 일부 민간 기업과 온건한 NGO는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위한 강력한 규제 도입을 지지했다. 2022년, 엘렌 맥아더 재단과 WWF가 주도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비즈니스 연합(BCGPT)'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 재활용 촉진, 순환 경제 모델을 지지하며, 이러한 접근 방식이 장기적인 환경적·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생산 단계에서부터 규제를 강화하고, 재사용 및 리필 시스템 촉진, 유해 화학물질 규제,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INC-4 회의 종료 직전, 르완다와 페루는 부산으로 가는 다리(Bridge to Busan) 선언문을 발표하고 강력한 규제를 포함한 협약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선언문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 재정 메커니즘 구축, 유해 화학물질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100여 개국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비록 법적 구속력 있는 조항을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더 강력한 협약을 추진하기 위한 위한 국제적 연대를 과시했다.

INC-5를 앞두고 의장단은 협상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비공식 제안서(Non-paper)를 회람했다. 이는 INC-4 이후 각국의 입장 차이로 복잡해진 협약문 초안을 정리하고 논의 가능한 쟁점으로 축약한 문서였다. 특히, INC-5를 최종 협상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의장단과 개최국 한국 및 일부 국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물이기도 했다. 제안서는 협의의 초점을 명확히 하고 절차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시도로 회의 시작 한 달 전 세 번째 수정안까지 공개되며 논의의 기준점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부 대표단은 협약의 핵심 의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다른 일부는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현실적 접근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INC-5가 마지막 협상이 될 수 있을지, 이 문서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됐다.



## INC-5 협상 전개, 그리고 회의 연장

INC-5의 개최와 함께, 회의 기간 동안 협상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의장의 비공식 제안서를 사용할지, 아니면 INC-4에서 논의된 기존 협약문 초안을 그대로 사용할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했다. 의장의 제안서는 기존 협약문 초안에서 논의가 어려운 부분을 일부 정리하고, ‘도달 가능한 결과(Low-hanging fruit)’를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이 제안서는 공식 협의 절차의 외연에서 의장단의 임의 권한으로 제시된 문서였기에 회원국의 동의 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지난 INC-4에서 LMG 국가들이 지연전술을 펼친 바 있어 INC-5 개최에서 다시 지연전술로 활용될 우려가 있었으나, 다행히 의장의 제안서를 기본으로 하되 기존 협약문 초안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합의가 이루어졌다.

본격적인 INC-5 협상은 당일 저녁부터 4개의 분과회의(Contact Group)로 나누어 시작됐다. 그러나 준비 부족으로 인한 협상의 효율성 저하 문제가 제기되었다. 회의장이 협소해 국가 대표단뿐만 아니라 참관인들의 참석도 제한되었으며, 종이 없는 행사로 운영되던 목표와 달리 인터넷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참석자들은 부산공항에서 휴대용 포켓 와이파이를 공수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또한, 협상과는 별개로 일회용품만 사용하는 카페테리아가 운영되어 즉각적인 비판과 개선 요구가 쏟아졌으며, 회의 진행 중 개선 작업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불만이 일었다.

협상 자체도 실질적인 진전은 부족했다. 의장의 짧은 제안서 기준으로 32개 조항에 달하는 문서를 두고 각 조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연전술이 각 분과회의마다 이어졌다. 각국의 의견 차이는 여전했으며, 여러 문항에 대해 괄호 안에 의견을 삽입하는 형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협약문을 수정하고 정리하는 대신, 이전 회의들과 마찬가지로 괄호와 함께 문구가 추가된 문서가 만들어졌다. 결국 나흘 차부터는 참관인 없이 국가 대표단만 참석하는 비공식 회의가 시작됐다. 국제 협상에서 참관인은 시민의 눈과 귀를 대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공간 부족과 절차적 문제로 그들의 참석이 제한되면서 참관인들 사이에서는 이번 회의를 ‘최악의 INC’라는 평가가 나돌았다.

회의의 마지막 날인 12월 1일 오후, 의장의 최종 문서가 배포되었으나, 22 페이지에 걸친 문서 내용과 형식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여전히 많은 부분이 괄호 속에 담겨 있었고, 조항별로 극단적인 선택지가 주어져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어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의장은 예상대로 회의 연장을 선언했다. 전체회의를 시작하며 의장 안토니아 바야스는 “아직 정상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정상이 눈앞에 보인다”라고 INC-5를 평가하며, “여정은 우리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때 마무리될 것”이라며 앞으로의 진전에 기대와 의지를 내비쳤다. 국가 대표단 사이에서는 비공식 회의가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에 효과적이었던 평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유엔 회의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희생하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는 경고가 함께했다. 또한 비공식 회의의 결과를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일부 대표단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문제와 연결 지으며 협약의 정의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했다.

INC-5 회의 자체가 괄호 속에 담긴 것과 마찬가지로 아쉬움도 있었지만, 완전히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강력한 협약의 핵심으로 꼽히는 세 가지 조항 - 생산 감축, 재정 매커니즘을 포함한 이행 방안, 유해화학물질 규제를 다루는 제안서에 각각 약 100여 개국이 서명하였다. 이 조항들은 INC-5.2 논의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 정부의 입장

하지만 한국은 이 세 가지 성명서 모두에 서명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INC-5를 마지막 회의로 삼아 협의를 마무리 짓는 데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최국으로서 중재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생산 감축에 대해서는 기계적 중립을 고수하며 회의 속행을 지원하는 발언 외에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건설적인 협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수의 산유국들과 생산 감축에 동의한 100여 개국 사이에 중재자를 자처한 한국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였다. 표면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핑계 삼고, 실은 플라스틱 생산 주요국가로서 근시안적인 산업보호 정책을 고수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한국 정부의 역할이 눈에 띄었던 지점은 폐어구 관련 제안에서였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육상 기인과 해상 기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협약에서 논의 중인 대부분의 조항이 이미 육상 기인 쓰레기를 다루고 있는 반면, 해상 기인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 특히, 폐어구 문제는 협약문 내에서 적절한 위치를 찾지 못하고 논의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INC-2와 INC-3 기간 중에 폐어구 문제는 사용 후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 조항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어졌다. INC-4에서는 폐어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약 논의에서 제외하되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루자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후 INC-5 의장 제안서에서도 제외되었다.

그러나 이번 INC-5 회의에서 한국은 제7조 제1항 배출 및 방출에서 폐어구를 별도로 다루는 규정을 추가하도록 하는 서면의견서를 제출했다. 제안서는 해양에서 폐어구가 유실되는 비율이 높고, 다른 폐기물에 비해 회수와 재활용이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여 두 가지 주요 수정안을 포함했다. 첫 번째는 어구의 전 생애 주기를 관리하는 하위 조항을 도입해 설계 개선, 표식 부착, 추적, 회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을 포함시키자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공급망의 플라스틱 펠릿, 플레이크 및 파우더’라는 표현을 더 포괄적인 ‘공급망 내 플라스틱’으로 수정하자는 제안이다. 한국의 제안서에 동의를 표하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폐어구 문제는 협약문 안에 적절하게 위치할 것으로 예측된다. 해양 쓰레기 문제를 오래 다루어 온 오션과 여타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도 별도 조항을 신설하도록 주장하기도 했으나,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기존 협약문 조항에서 폐어구가 포함될 만한 조항을 찾는다면 한국 정부의 제안이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여겨진다.

## 앞으로의 전망

아직 INC-5.2가 언제, 어디서 열릴지 미지수이다. 협상을 위한 전 지구적인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플라스틱으로 인한 피해는 멈출 줄 모른다. 협약 결의안에서 조속한 합의를 요구한 이유도 플라스틱 오염에 신속한 국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INC-5.2에서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동시에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속 빈 강정 협약이 되도록 둘 수도 없다.

INC-5 폐회에서 바야스 의장은 “길은 없다, 길은 걸으며 만든다”라는 안토니오 마차도의 말을 인용하며 “우리의 작은 하지만 확고한 걸음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희망을 남겼다. 각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협약을 향한 국제 사회의 노력이 이어질 예정이다. 부디 INC-5.2에서 강력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실질적인 합의, 즉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전 지구적 플라스틱 오염을 막을 수 있는 협약의 성안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또한 플라스틱 규제와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의 긴 여정에서 오션 역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내리라는 다짐을 전한다.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원 공동 작성 | [osean@osean.net](mailto:osean@osean.net)

부산에서 열린 유엔환경계획(UNEP) 주관의 대규모 국제 협상은 단순히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장을 넘어, 한국 시민사회가 그 역동성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질적 성장을 도모할 기회로 작용했다. 특히, 협상 과정 중 이틀간 참관인이 배제되고 국가 대표단만 참여하는 비공식 회의가 진행되면서, 국내외 시민사회는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목소리를 결집하기 위해 독립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거나 다양한 행동에 나섰다. 해양쓰레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NGO인 오션도 활발한 교류의 흐름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데 역할을 톡톡히 했다. 주요 활동을 아래에 소개한다.



[사진 1 & 2. 1123 플라스틱 행진을 위해 전국 각 지역과 전 세계에서 온 시민 1,000여 명이 모였다.]

INC-5 개회를 앞두고, 오션 연구원들은 국내를 기반으로 플라스틱 협약 대응 활동 중인 국내외 시민 단체들의 연합인 “플”라스틱을 “뿌리” 뽑는 “연대”(이하 플뿌리연대)의 일원으로서 반플라스틱 행진에 참여하였다. INC 마다 개최지 인근에서 열린 반플라스틱 행진은 INC-5에 이르러 참가자 1,500명에 달하는 성대한 시민사회 활동으로 자리매김했다. 전국의 각 지역뿐 아니라 해외에서 INC-5 참석을 위해 한국으로 날아온 해외의 활동가들이 함께 모였다. 행진 참석자들은 회의가 열리는 벅스코 옆 올림픽 공원에서 시작하여 회의장을 한 바퀴 둘러 싸고 긴 행렬을 이어갔다. 행진에 참여한 이들은 회의장을 둘러싸 한 목소리로 “플라스틱 오염 없는 세상을 원한다”고 외치며 마칭 밴드와 사물놀이패의 흥겨운 리듬에 발을 맞췄다.

## 플뿌리연대 활동 참여



[사진 3. 기자간담회에 참여하여 발언한 이유나 팀장(왼쪽에서 두 번째)]

오션은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해 국내외 16개 시민단체가 모인 “플라스틱을 뿌리 뽑는 연대”(이하, 플뿌리연대)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11월 29일에는 149개 시민단체 연합이 모여 지지부진한 협상에 대해 각국 대표단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으며, 12월 1일에는 플뿌리연대 주최 기자간담회에 참여하여 개최국인 한국 정부가 생산 감축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 플라스틱 인류 상영회 토론 패널 참석



[사진 4. 상영회 토론 패널리스트 단체사진]

INC-5를 맞이하여 부산 센텀 롯데시네마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플라스틱 인류 상영회는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다. 이 영화는 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이 인류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생생히 드러내며 관객들에게 충격과 경각심을 안겼다. 이틀째인 11월 26일 저녁, 해외 참가자와 국가 대표단을 초청한 특별 상영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이유나 국제협력팀장이 토론 패널로 참석하였다. 이유나 팀장은 협상장에서 확인된 몇 가지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플라스틱이 인류에 미치는 피해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음에도 이를 부정하거나, '생애 주기' 개념을 원료 생산 이후로 제한하는 등 학문적 논의를 멋대로 짜맞추어 왜곡하는 움직임을 비판했다. 나아가 해양 오염 문제에서 출발한 플라스틱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생산과 소비의 감축뿐이며, 이는 결국 반성장주의와 반자본주의적 접근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소배출권 등 이미 실패와 한계가 명확한 시장기반 정책이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그대로 적용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러한 방식이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발전권'을 단순히 경제적 성장에 국한하는 태도가 협상의 주요 걸림돌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유나 팀장은 협상 테이블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관점을 통합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플라스틱 오염에 맞선 청년 이해관계자 총회



[사진 5. 청년 이해관계자 총회]

2024년 11월 24일,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에서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는 청년 이해관계자 총회가 개최되었다. 오션의 이민성 인턴(KOICA YP)은 본 총회에 참석해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의 역할과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총 8시간 동안 진행된 본 총회는 다양한 국적의 청년 이해관계자의 관점과 전략을 공유하며, 플라스틱 오염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실천 계획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장이 되었다.

## 데이터 시스템 개발 세미나와 토의 참가



[사진 6. 데이터 시스템 개발 세미나 중 토의에 참여하여 발언 중인 엘리시아 로 연구원]



[사진 7. 플라스틱 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적 데이터 시스템 개발 세미나에 참여한 이종명 소장]

2024년 11월 26일에 열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국가 데이터 시스템 개발" 특별 세션에서, 오션의 엘리시아 로 연구원이 "플라스틱 오염 관리를 위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패널에 패널리스트로 참여했다. 엘리시아 로 연구원은 한국의 국가 모니터링 프로그램 경험, 정부-연구소-NGO 간 협력의 중요성, 그리고 모니터링 데이터가 정책 변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시민과학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정확성을 어떻게 검증하는지,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가 이후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청중의 질문에 답변했다.

11월 28일에는 '플라스틱 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적 데이터 시스템 개발'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오션에서는 이종명 연구소장이 참석하여 '한국의 데이터 기반 해양쓰레기 관리 사례'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종명 소장은 오션이 지난 3년간 수행한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의 해양쓰레기 데이터 관리,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해양쓰레기 피해와 발생량에 대한 데이터 분석 서비스 개발 성과를 소개했다. 또 오션이 국가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하여 '열일 캠페인'의 대상 쓰레기를 선정한 방법과 바다기사단 플랫폼을 활용한 변화 추적 및 성과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 해외 미디어 인터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한국의 해양 플라스틱 오염 대응 단체 오션은 이번 협상을 계기로 해외 미디어의 관심을 받았다. 그중에서도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주제로 부산 국제 영화제에서 단편 다큐상을 수상한 카나 토모코 감독이 오션에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는 현재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다룬 새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이다. 인터뷰에서 이종명 연구소장과 이유나 국제협력팀장은 아태지역을 무대로 펼치는 오션의 해양 쓰레기 대응 이니셔티브,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연계, 그리고 한일 양국의 공동 대응 방안 등 여러 질문에 답했다. 해류와 바람을 따라 이동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특성상, 한국과 일본이 서로 밀접한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일본으로, 일본은 태평양으로 떠밀려가는 쓰레기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공동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카나 감독의 다큐멘터리는 2026년 개봉 예정으로, 한일 간 해양 쓰레기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양국 간 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션은 이외에도 대만의 United Daily News와의 인터뷰에 참여하여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서 해양쓰레기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오션의 활동을 해외로 널리 알렸다.

오션은 이번 활동을 통해 초국경적인 글로벌 문제에 있어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 쓰레기 문제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지속가능한 해양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경남 글로벌 통합 포럼 참여 및 MOU 체결

동아시아 지역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협력 활동 소개

이종명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소장 | jmlee@osean.net



[사진 1. 경남국제개발협력센터와 MOU 체결(사진: 경남국제개발협력센터)]

경남 글로벌통합포럼이 2024년 11월 21일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열렸다.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이하, 오션) 이종명 연구소장이 ‘해양 생물 도시지속가능성’ 포럼에 참여하여 ‘동아시아의 해양쓰레기 줄이기 협력’을 소개했다. 오션은 9개 나라 11개 엔지오가 참여하는 ‘아시아 태평양 해양쓰레기 시민 포럼’의 사무국으로 정기 세미나와 뉴스레터 발간을 통해 이 지역 엔지오들의 역량 강화를 추진해 왔다. 또, 해양수산부의 해양쓰레기 ODA 기획 연구를 수행하여 ‘동남아시아 해양 플라스틱 저감 사업’의 신규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인도네시아 해양쓰레기 대응 개선 사업’을 직접 수행했고, 2021년부터는 한국국제협력단의 ‘필리핀 마닐라만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 강화’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종명 소장은 오션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 열일 캠페인(Ten2One Campaign International)’도 소개했다. 국가 별로 가장 피해 정도가 심각한 해양쓰레기 10종류를 식별하여 대응 정책을 개발하고, 그 성과를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시민과학을 통해 평가하자는 제안이다. 국제 플라스틱 오염 협약이 체결된다면 그 이행 성과를 평가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날 오션은 경남국제개발협력센터와 업무협약서(MOU)도 체결했다. 두 기관은 ESG 기반 그린 ODA 활성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정보공유와 상호 업무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경상남도 등 지역 주도 ODA가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최근활동

# 지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170명 청년들에게 국제 플라스틱 협약 소개

한국지속가능발전청년협의체 정기총회에서 전문가 강연 실시

홍선욱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대표 | sunnyhong@osean.net

### 제11차 한국지속가능발전청년협의체 정기총회를 향한 귀한 발걸음에 감사드립니다.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홍선욱 대표님께

제11차 한국지속가능발전청년협의체 정기총회에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전해주시신 값어치는 풍요로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연은 참가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셨으며,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해양양 쓰레기 집하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문제를 본격화하여 강조하신 '시민과학' 데이터 기반 접근의 중요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불러일으켰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청년들의 활동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이번 정기총회가 더욱 뜻깊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으며, 청년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정기총회의 위치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대표님의 소중한 기여에 감사드리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님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대표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앞으로는 뜻깊은 만남과 협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SDSN Youth Korea  
홍선욱 팀장 올림



2024년 11월 16일  
제11차 정기총회

참가자 170명

- 한국지속가능발전청년협의체 구성원  
- SDGs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활동가



[사진 1 & 2. 오션 홍선욱 대표가 온라인 강의에서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모습과 강의에 참여한 청년들이 수강하는 모습]

지난 11월 16일,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고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의 총회에서 해양 플라스틱 오염과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의미에 대해 강의하였다. 이번 강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유엔의 지침에 따라 전 세계의 공동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 2012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주도로 지속가능발전솔루션네트워크(SDSN)가 설립되었다. 이 중 젊은 리더들이 교육, 역량 강화 및 영향력 있는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조직(SDSN Youth)을 만들었고 매년 총회를 개최한다. 이것의 한국 조직이 SDSN Youth Korea이며, 전국 37개 대학, 83개 지회에서 2,600명 이상의 청년 활동가들이 활동 중이다. 이번 회의는 2018년 설립 이후 11번째 총회였는데, 전국에서 170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였다.

행사 준비팀은 2024년 7월 UN 고위급정치포럼(HLPF)에서 선정된 5개의 Core SDGs(SDG 3번, SDG 5번, SDG 8번, SDG 14번, SDG 17번)에 대해 청년들과 함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획하였다고 밝혔다. SDG 14번 해양에 대한 강의를 준비한 홍선욱 대표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와 국제 협력 육성에 있어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강연은 데이터 기반 솔루션의 중요성과 지구 전체에 영향을 주고 모든 인류가 위협에 직면한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였다. 또한 홍대표는 젊은 세대에게 책임을 지우게 되어 미안한 마음과 더불어 이제는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전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총회는 청소년 지도자들이 해양 생태계 보호에 특히 초점을 맞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지속 가능성을 위한 실행 가능한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번 행사는 SDSN Youth Korea가 주최,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Korea), 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OJERI)이 주관한 행사로, 지난 9월 오션과 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과의 업무 협약 체결 이후 이어진 활동이다.

## 반짝이는 청년 오션 서포터즈, '윤슬' 1기 수료 이야기

해양환경 보호 서포터즈 윤슬 1기 성공적 마무리

---

도파라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운영지원팀장 | [parado@osean.net](mailto:parado@osean.net)

### 청년 서포터즈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열정이 해양환경 보호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다

지난 11월 22일,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OSEAN, 이하 오션)은 '윤슬 1기 수료식'을 갖고 3개월에 걸친 서포터즈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수료식은 서울에서 진행되었으며, 프로젝트 퀘스천 대표 최은원, 오션 대표 홍선욱, 그리고 운영지원팀장 도파라를 비롯해 윤슬 1기의 서포터즈 8명이 모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윤슬 1기는 올해 8월에 시작해 약 12주 동안 활동을 이어오며, 해양환경 보호와 기부 캠페인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윤슬"이라는 이름은 순우리말로 "햇빛이나 달빛이 비치어 반짝이는 잔물결"을 의미하며, 바다 위 윤슬처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새로운 빛을 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팀별 독창적 프로젝트로 빛난 윤슬 1기

윤슬 1기는 무한대, 버디, 윤밍슬 3개의 팀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각자의 개성을 살린 홍보물을 제작했다. 무한대 팀은 대중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심리테스트와 그림자 퀴즈를 활용한 홍보물을 제작했다. 이를 통해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했다. 버디 팀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SMR을 활용한 창의적인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감각적인 음향 효과로 주제를 전달하며 독특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윤밍슬 팀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고, 대중에게 익숙한 인기 밈(meme)을 활용한 콘텐츠를 통해 친근하면서도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들이 제작한 홍보물은 오션의 공식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 수료식 현장, 열정과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

수료식에서는 서포터즈들의 노력과 성과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홍대표는 축사에서 "윤슬 1기의 청년의 활동은 정말 빛났고, 이들의 활동이 오션의 활동보다 강력하다고 느꼈다"라며 감사를 표했다. 또한, 각 팀의 활동 결과물이 발표되었고, 서포터즈들의 소감과 활동 후기 발표가 이어졌다. 운영지원팀장 도파라는 "윤슬 1기는 해양환경 보호 활동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윤슬 프로젝트가 더 많은 청년들에게 영감을 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진 1. 윤슬 1기 서포터즈와 함께 오션 홍선욱 대표(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오션 도파라 운영지원팀장(뒷줄 오른쪽 첫 번째), 프로젝트 퀘스천 최은원 대표(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가 수료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성과를 축하하고 있다.]

## 윤슬 1기, 지속 가능한 서포터즈의 시작

윤슬 1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서포터즈들은 수료증과 함께 바다기사단 배지, 오션 인턴 지원 자격, 해양환경 교육 수강 기회, ESG 실천 기업 및 기관의 추천서 등 다양한 리워드를 받았다. 특히, 우수 서포터즈에게는 국제플라스틱협약 제정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사이드 이벤트의 서포터즈 참여 기회도 주어졌다. 오션은 윤슬 1기의 성공을 발판 삼아 앞으로 윤슬 2기, 3기, 그리고 그 이상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서포터즈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청년들의 열정과 창의성이 만들어 갈 해양환경 보호의 새로운 물결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 해양환경 보호의 새로운 동력을 만드는 윤슬

이번 윤슬 1기의 활동은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청년들이 스스로 해양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더 나아가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앞으로도 윤슬 프로젝트는 해양환경 보호의 비전을 실현하며 지속가능한 바다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윤슬 1기가 만들어낸 반짝이는 잔물결이 더 큰 바다를 변화시키는 물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 영천여중, ESG 교육 통해 미세플라스틱 문제 체험

이종수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모니터링연구팀장 | jongsulee@osean.net  
엘리시아 로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원 | lohalicia@osean.net

지난 2024년 11월 25일, 경북 영천에 위치한 영천여자중학교에서는 2024 ESG 리더십 함양을 통한 세계 시민 교육 프로그램이 열렸다. 이 프로그램은 ESG와 세계 시민의식을 주제로 한 강연과 지구를 지키는 Z세대라는 체험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의 이종수 모니터링 팀장과 엘리시아 로 연구원이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 오염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진행했으며, 이어서 미세플라스틱 분류 체험활동을 이끌었다. 이 프로그램에는 200명 이상의 학생과 교사가 참여했으며 20분간의 강의 후 체험 활동이 30분간 진행됐다.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학생들이 미세플라스틱 섭취 시 인체에 대한 영향과 미세플라스틱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질문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많은 학생이 평소 익숙하게 들어온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체험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5명씩 조를 이루어 거제 흥남과 포항 칠포 해변에서 채취한 모래 시료에서 미세플라스틱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였다. 학생들은 플라스틱처럼 보이는 물체를 골라내도록 지도를 받았고, 자신이 고른 물체가 실제로 플라스틱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큰 호기심을 드러냈다. 각 조는 20개 이상의 플라스틱 조각을 찾아내며 의미 있는 결과를 끌어냈다.

체험 활동 후, 학생들은 자신이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했던 물체 대부분이 실제로는 조개껍질, 씨앗, 돌과 같은 자연 소재였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현했다. 또한, 분류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미세플라스틱의 양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한 학교 측은 학생들이 강의와 체험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사진 1. 이종수 모니터링 연구팀장이 영천여자중학교 교사들에게 미세플라스틱 분류 체험활동 설명하는 모습]

# 환경재단 바다쓰담 캠페인 결과 보고회에서 주제 강연

연안정화에 활용하기 좋은 열일바다청소 앱 등 소개

홍선욱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대표 | sunnyhong@osean.net



[사진 1. 환경재단 2024 바다쓰담 결과보고회에 참석한 단체 참가자들 모습(사진: 환경재단)]



[사진 2. 2024 바다쓰담 결과보고회에서 강연 중인 오션 홍선욱 대표 모습]

이번 달 6일,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열린 '2024 바다쓰담 결과 보고회'에서 주제 강연을 하고 왔다. '바다쓰담'은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된 환경재단과 한국 코카-콜라의 대표 캠페인 중 하나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재단의 지원을 받은 거제해녀아카데미, 시피알(Sea P.R.), 블루, 훈디, 강화도시민연대, 시화호지속가능파트너십,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 등 12개 단체가 올해 5월부터 약 6개월간 활동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단체들의 활동에 도움이 될만한 주제로 '해양 플라스틱 오염, 예방과 실천을 위한 시민과학 접근법'이라는 강의를 통해, 해양쓰레기와 시민과학 데이터의 중요성, 드론과 AI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시민과학 프로그램인 바다기사단, 국제연안정화보다 쉬운 열일바다청소 앱을 이용한 조사와 청소,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동향 등을 소개하였다. 쓰레기를 청소하는 데 진심인 단체들의 열정적인 활동에 경의를 표하고, 환경재단과 코카콜라의 지원으로 이들의 활동이 더욱 가치를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 지에스리테일, 팀부스터, 오션, 해양생태보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 체계의 모범 사례 기대

홍선욱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대표 | sunnyhong@osean.net

오션은 지난 11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지에스타워에서, 지에스리테일, 팀부스터와 함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곽창현 지에스리테일 대외협력부부장, 곽태진 팀부스터 대표, 홍선욱 오션 대표가 업무 협약서에 서명하고 향후 지속적인 바다환경보전 활동을 약속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1. 멸종위기종 바다거북 등 해양보호생물을 위한 수중 정화활동 및 대국민 캠페인,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주 해역 등 수중 생태계 모니터링 및 연구, 3. 해양보호구역 인식 증진 활동 등에 협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지에스25 점포에서 사용 후 폐기하는 전자제품을,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후 재활용하는 E-순환거버넌스와 연계해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이 활동의 기반이 된다. 오션은 이 수익금을 기부받아 위 협약의 내용을 중심으로 탐사전문 다이버 그룹인 팀부스터와 전국 해양엔지오 들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5년 첫째 활동 기금은 1억 4천여만 원 규모인데, 바다거북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과 바다거북에 피해를 주는 해양쓰레기 조사와 정화 활동 등을 해안과 수중에서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폐가전 자원화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바다 환경보호에 사용하는 선순환 체계를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활동으로 이어지는 바람직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진 1.  
GS리테일, 팀부스터, 오션 간  
업무협약 체결 모습(왼쪽부터  
팀부스터 곽태진 대표,  
GS리테일 곽창현 부부장,  
오션 홍선욱 대표,  
제공: GS리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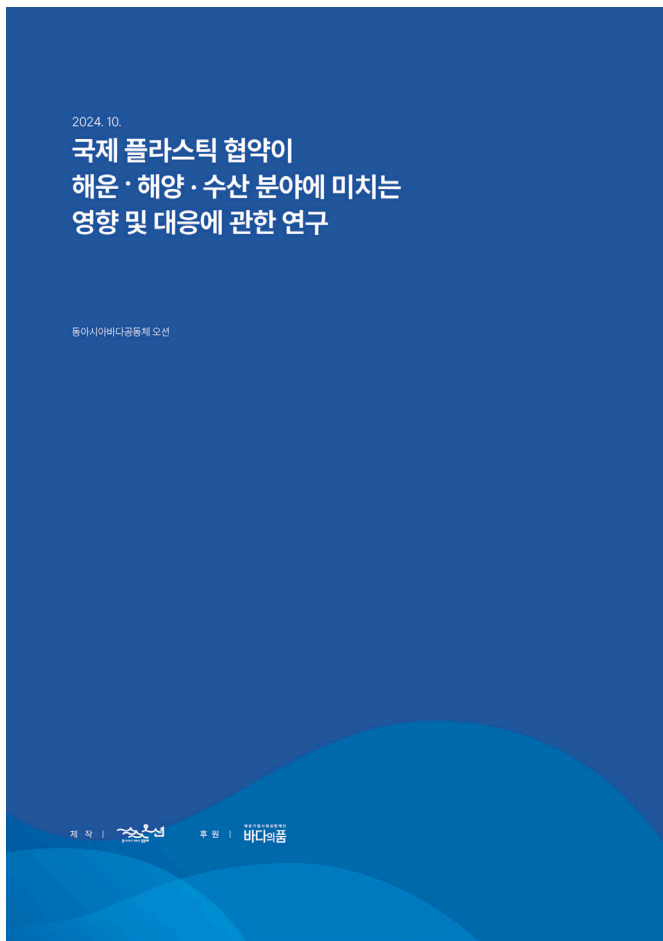


## 최근활동

#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해운·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간

협약의 배경부터 협상 진행 과정과 관련 국내 정책 및 동향까지 포괄적으로 담은 보고서

김혜주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원 | [hyejukim@osean.net](mailto:hyejukim@osean.net)



[사진 1. 보고서 표지]

해양쓰레기 전문 민간 연구소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해운·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해운기업사회공헌재단 '바다의품'(이사장 정태순)의 후원으로 발간한 동 보고서는 협약의 추진 배경,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 논의 과정과 구성 및 주요 쟁점, 협약의 주요 이해관계자, 국내의 관련한 정책 및 동향뿐 아니라 국제 플라스틱 협약과 해운·해양·수산 부문 간의 연관성까지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았다.

본 연구의 요약보고서 “지금이 골든타임! 플라스틱 오염을 멈추자! 해양 플라스틱 오염과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별도로 발간하였다.

요약보고서 다운로드 | <https://osean.net/education/?q=YToxOntzOjEyOiJrZXI3b3JkX3R5cGUiO3M6MzoiYWxsIj9&bmode=view&idx=123182052&t=board>

인용방법 | 홍선욱, 이종명, 진주, 이유나, 김혜주, 엘리시아 로, 이소영, 2024.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해운·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통영  
문의사항 | [osean@osean.net](mailto:osean@osean.net)

## 1차 플라스틱 생산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

제536회 오션 정기 세미나에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를 앞두고 플라스틱 생산 공정 전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화하고, 주요 플라스틱 폴리머별 배출량을 분석한 논문 다뤄

이소영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원 | soyeong@osean.net

### 원문

Karali, N., Khanna, N., & Shah, N. (2024). Climate Impact of Primary Plastic Production.

지난 11월 25일부터 부산에서 개최된 국제플라스틱협약의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에서 주요 의제 중 하나로 플라스틱 생산 감축 논의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논의에 발맞추어, 이번 세미나에서는 플라스틱 생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플라스틱 생산 공정별, 주요 플라스틱 폴리머별 배출량을 분석한 논문을 다뤄보았다. 분석 대상은 LDPE, HDPE, PP, PET 등 9가지 주요 플라스틱 폴리머로, 주로 포장재, 건설, 운송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된다. 연구진들은 상향식 모델링을 통해 제조 공정별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했으며, IPCC의 100년 온난화지수(GWP-100)를 활용하여 배출량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했다.

연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 세계 1차 플라스틱 생산으로 배출된 온실가스는 약 2.24기가톤(GtCO<sub>2</sub>e)으로, 이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3%를 차지한다. 특히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75%는 중합 이전 단계에서 발생했으며, PPL나 PE 같은 플라스틱에서 배출량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 세계 석유 수요의 약 12%, 천연가스 수요의 8.5%가 플라스틱 생산에 사용되고 있어, 이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재활용은 제한적이고, 화학적 재활용은 오히려 탄소발자국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후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사용, 수리 등을 염두에 둔 생산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플라스틱 생산과 기후변화의 연계를 명확히 제시하며, 플라스틱 감축과 관련된 국제적 논의에 중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협상이 계속됨에 따라,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대안을 통한 환경적 영향 최소화, 플라스틱 생산 감축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오션의 이종명 연구소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이전 오션 정기세미나에서 다뤘던 “Zheng, J., Suh, S. (2019)의 Strategies to reduce the global carbon footprint of plastics 논문 내용을 인용하며, 플라스틱으로 인한 영향 감소를 위해 재활용이나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흔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전환하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플라스틱 협약 논의가 진행되면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산업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를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모색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수부·GS리테일, '해양보호생물 보호' 맞손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17\\_0002999516](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17_0002999516)

[출처] 뉴시스 | 2024.12.17 | 박성환 기자

“저 많은 쓰레기가 바다를 삼키기 전에”...  
제주에서 시작한 ‘렛츠플로그’의 기적

<http://www.jibs.co.kr/news/articles/articlesDetail/43166?feed=na>

[출처] JIBS뉴스 | 2024.12.16 | 김지훈 기자

시민 2500여명이 반년간 해양쓰레기 56t 수거...  
플라스틱 파편만 1만8000여개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209503564?OutUrl=naver>

[출처] 세계일보 | 2024.12.09 | 정재영 기자

AI 기반 드론 촬영을  
통한 장항습지 쓰레기  
집중조사

람사르 습지 덮은 쓰레기... “플라스틱이 98.5%”

[https://www.youtube.com/watch?v=m\\_TG7Z1f0tA](https://www.youtube.com/watch?v=m_TG7Z1f0tA)

[출처] KBS 9시 뉴스 | 2024.11.16 | KBS News



장어통발 유도구  
문제점 해결을  
위한 연안 장어통발  
조업활동

매일 통발10,000개를 뿌리고 거둬라!  
잠도 쪼개 자는 장어잡이 어선

<https://www.youtube.com/watch?v=B4eU1J7zAa0>

[출처] PD로그 | 2024.11.20 | EBS Documentary (EBS 다큐)

백만 개의 플라스틱, 지구 반대편에서 발견되다

<https://www.youtube.com/watch?v=V6JQ1ui2xCk>

[출처] PD로그 | 2024.11.20 | EBS Documentary (EBS 다큐)



## 오션을 밀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 함께 나눌 회원을 모집합니다.

후원 회원님! 오션을 통해 꿈꾸는 바다의 모습을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기다립니다.

---

오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6월 호 뉴스레터부터 연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는 “최초로 공개하는 오션의 모든 연구원 이야기”를 두 차례에 걸쳐 소개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오션을 후원하며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회원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담아보려 합니다.

처음 오션을 후원하게 된 계기, 오션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 후원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후원 기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나 인상 깊었던 프로젝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후원을 통해 경험한 개인적인 변화와 오션의 활동이 가져다준 감정이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바다가 후원자님께 어떤 의미인지, 오션을 통해 꿈꾸는 미래의 바다는 어떤 모습인지도 함께 나누어주세요. 오션을 응원해 주시는 다른 회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션과 함께하는 여정에 참여해 주실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참여방법

아래 구글 폼 접속 후 원하시는 질문에 답변 작성 후 제출

<https://forms.gle/SdmiLRaECcKt1Sqr5>

### 문의

055-643-6381 운영지원팀 도파라 / osean@osean.net

환영합니다!

이번 달 새로 회원 가입해 주신 분을 소개합니다.

보다 뜻깊은 활동으로 후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조성진 님,

회원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민정 님,

회원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완중 님,

회원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11월 회비를 내주신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오션은 해양쓰레기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성과 과학성을 지향하는 '연구공동체'입니다.

연구와 조사 사업을 통해 한발 한발 다가가는 연구기관임과 동시에,

여러분이 보태어 주시는 에너지로 여러분과 함께 시민과학의 기반을 다지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멀리 계시면서도 언제나 믿고 힘이 되어주시는 회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 11월 회비를 내주신 분들

강대석 강동웅 강덕선 강륜화 강민구 강성길 강재영 강정훈 고개희 고문현 고선화 고진필 공필재 곽연희 곽유상  
 곽태진 권단비 권미양 권영신 권정은 김경신 김기림 김기만 김기범 김나리 김나령 김도근 김동원 김령규 김민정  
 김민지 김상문 김석현 김선동 김성우 김성은 김소영 김승규 김아영 김양균 김여훈 김영규 김영미 김영은 김영일  
 김영준 김용환 김은정 김의태 김이현 김재진 김정아 김정윤 김종덕 김종범 김준형 김지혜 김지환 김진일 김초희  
 김태연 김태훈 김태희 김해기 김향희 김현정 김호상 김호찬 김환희 김효정 김훈 김희종 나한나 남정호 노현정  
 노희정 도영준 도파라 로라킴 류동희 류영완 류종성 목진용 문경숙 문명희 문호방 민병걸 박경규 박경화 박경희  
 박동민 박명관 박미경 박미선 박솔 박연자 박영규 박요섭 박윤경 박은주 박은지 박은진 박인숙 박주영  
 박준건 박준용 박지민 박지혜 박철민 박출이 박형식 박희제 배창수 변효진 서은희 서정미 선평경 성홍근 손석현  
 손성민 손어진 손현준 송영경 송종원 시지훈 신민주 신소린 신재영 신춘희 심원준 심이나 안명덕 안병덕 안순희  
 안준건 안지연 양명기 양수민 예수진 오경희 오기택 오정근 오정순 오창영 원종호 우민수 유병덕 유신호 유영주  
 유찬민 윤동영 윤슬아 윤승철 은자경 윤현정 윤희영이강만 이경아 이경희 이광수 이광재 이동경 이동규 이두형  
 이문숙 이보경 이석중 이순천 이승현 이영호 이요셉 이유나 이유리 이인숙 이인식 이재환 이정민 이정민 이정은  
 이정이 이정현 이종란 이종명 이종수 이종호 이주연 이지아 이진석 이찬원 이철용 이태식 이현주 이현진  
 일점오도씨 임상욱 임세한 임운혁 임정은 임진아 임채원 임효혁 임효희 임희근 장미 장용철 장원근 장은영  
 장은솔 전일구 전현수 전형석 전해영 전홍선 전홍표 정미현 정민경 정수경 정승애 정지현 정지혜 정진아 정춘구  
 정형욱 정호승 조갑자 조문경 조성수 조성익 조영숙 조현우 조현국 조현숙 조홍연 진주 채정연 채흥기 최나현  
 최명애 최순애 최승만 최시열 최영석 최용준 최윤숙 최은정 최주섭 최지연 최지현 최필종 최현우 최희정 하경도  
 한기명 한나진 한동욱 허낙원 허인숙 홍상희 홍선욱 홍성민 홍성진 홍승표 홍원표 홍준성 황대호 황선규 황선주  
 황열순 황지현 황정희 황혜진



## 11월 후원해주신 기업과 단체

<b>정기후원</b>	드림오션네트워크, (주)리와인드, (주)허니랩, 코스파(주), (주)지오시스템리서치, (주)오션사이언스, (주)샤인임팩트, 유한회사 온테크, 거제해녀아카데미
<b>일시후원</b>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런마일리지도네이션클럽, (주)지에스칼텍스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OSEAN)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세법 상의 기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의 후원회원 가입 및 기부를 환영합니다.  
OSEAN의 취지에 공감하고 회원이 되고 싶은 분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 후원 바로가기  
[www.osean.net/support](http://www.osean.net/support)

### 후원 정보

#### 회원 / 기부금 계좌

농협 301-0051-2766-11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E-mail		osean@osean.net	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5로 55-9 KD빌딩 404호 (우53014)
Tel		055-643-6381			
Fax		055-649-5228	인스타그램		@osean_net

## 제540회 오션세미나

1월 7일 10:30 AM

### 인공지능의 환경적 영향 재조명: 간과된 탄소 배출원?

(Yang Yu, Jiahui Wang, Yu Liu, Pingfeng Yu, Dongsheng Wang, Ping Zheng, Meng Zhang, 2024. Revisit the environmental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overlooked carbon emission source?, Frontiers of Environmental Science & Engineering, 18:158)

## 제541회 오션세미나

1월 14일 10:30 AM

### 국제 플라스틱 협약 INC-5 결과 공유와 의장 문서 분석

(UNEP, 2024, Chair's Text)

## 제542회 오션세미나

1월 21일 10:30 AM

### 무인 항공 시스템과 객체 지향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모래 해변의 해양 대형 쓰레기 개체수 정량화

(Gil Gonçalves, Umberto Andriolo, Luísa Gonçalves, Paula Sobral, Filipa Bessa, 2020. Quantifying Marine Macro Litter Abundance on a Sandy Beach Using Unmanned Aerial Systems and Object-Oriented Machine Learning Methods, Remote Sensing, 12:2599)

### 회의실 링크

<https://us02web.zoom.us/j/83042475968>

암호 : 1234

(※ 오션의 화요 정기 세미나는 되풀이 회의로 예약되어 매주 링크 주소가 같습니다.)

### 참가신청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이메일([osean@osean.net](mailto:osean@osean.net))로 신청해 주세요.

논문을 보내드립니다.

### 결과 정리

세미나 과정은 녹화한 뒤 유튜브를 통해 일반에게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내용은 한글로 정리하여 월간 '오늘의 해양쓰레기'를 통해 독자들과 공유합니다.

### 일정 변경

부득이한 상황으로 세미나를 열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주 일정이 취소되고 다음 일정은 공지된 대로 진행합니다. 참가자들은 반드시 세미나 하루 전날(월요일) 오후에 게시판에 변경 공지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 문의

미리 개설된 원격 세미나실이 담당자의 실수나 네트워크 사정으로 인해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osean@osean.net](mailto:osean@osean.net)로 메일을 주시거나 055-643-6381로 전화를 주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 오션(Our Sea of East Asia Network, OSEAN)은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 교육 홍보, 정책 개발, 국제 협력 등을 위해 2009년 설립된 비영리 연구소입니다. 해양환경 중에서도 특히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어민과 기업 등 해양환경과 연관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는 물론,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모든 시민들과 함께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션은 언제나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 함께 하는 사람들

<b>대표</b>	홍선욱	<b>연구소장</b>	이종명
<b>연구원</b>	이종수, 정호승, 이유리, 엘리시아 로, 도파라, 이유나, 김령규, 한국인, 김혜주, 이소영, 윤승철, 이민성(KOICA YP)		
<b>이사</b>	강대석, 이인식, 시지훈, 이규태, 김기범		
<b>상임고문</b>	김인환, 최주섭		
<b>예술 감독</b>	김정아		
<b>교육 프로그래머</b>	김태희, 이종호		

---

<b>발행인</b>	홍선욱	<b>편집인</b>	이종명	<b>디자인</b>	FREEVIEW STUDIO
------------	-----	------------	-----	------------	-----------------

---

전화번호		055-643-6381	인스타그램		@osean_net
홈페이지		www.osean.net	바다기사단 데이터 플랫폼		cloud.oceanknights.net
이메일		osean@osean.net	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5로 55-9 KD빌딩 404호 (우53014)
카페		cafe.naver.com/osean			

---

저작권은 오션에 있습니다.  
이 뉴스레터 기사를 인용할 때는 아래와 같이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월간 뉴스레터 '오늘의 해양쓰레기'  
통권177호 2024년 12월호, 이종명 (편집)



오션에서는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